

日, 시장 통합해 항일 거점 없애고 공장지어 노동력 착취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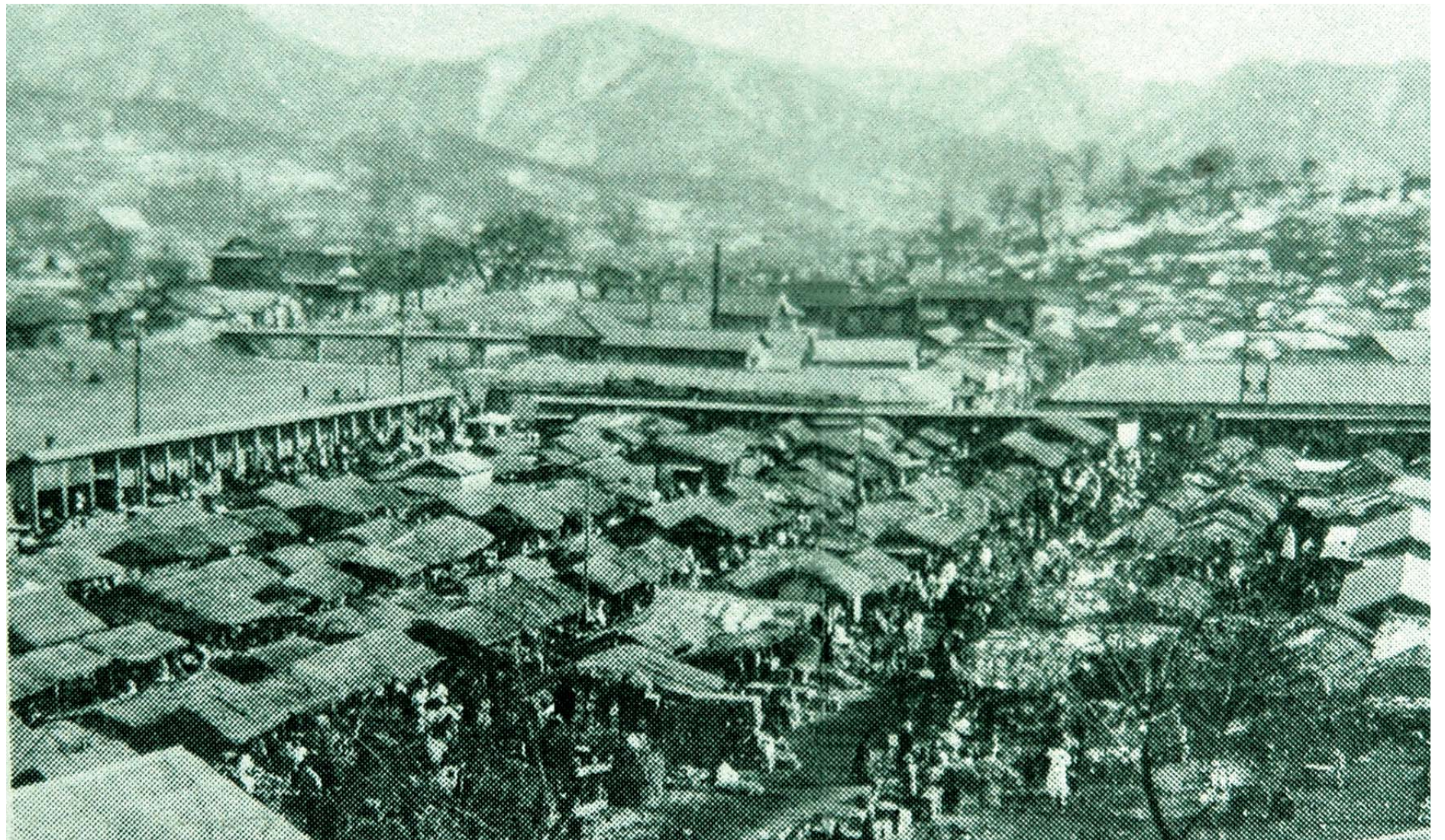
11. 첫 시가지 개발부지된 광주천 둔치

토지 분쟁 없고 면적 충분

공업용수 풍부해 개발 1순위

광주천 직강화·무분별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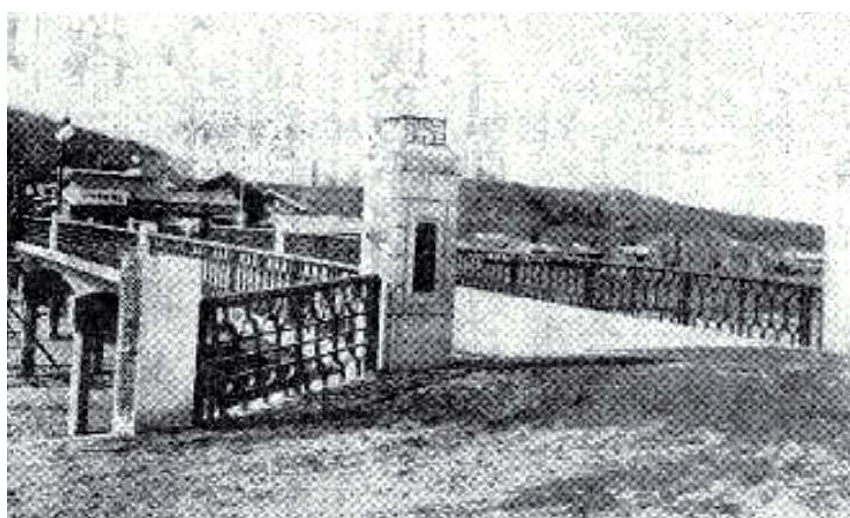
광주 첫 공직자 비리·수해 불리



일본인 면장이 주도해 수 백년 이상 광주에 뿌리내려온 큰 장과 작은 장을 없애고 사정(남구 사동)에 이들을 이전시켜 조성한 사정시장. 이 시장 부지 분양을 놓고 일본인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일본인 면장은 해임된다.



1936년 광주천수선공사 준공도. 광주부는 이 해 영산강의 제1지류인 광주천 내 광산군 극락면(서구 치평동) 일대 992.82m 구간에 제방을 쌓는 사업을 마쳤다. 일제는 이 일대에 대한 수해가 반복돼 인근 시설 및 농작물 피해를 계속되자 1933년 사업에 나섰다. 광주천 도심 구간 외에는 이처럼 수해가 생기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910년대 후반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끝난 광주천 우안과 미개발지인 광주천 좌안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광주교에 이어 금교, 광주대교, 부동교 등이 잇따라 개설됐다. 사진은 1935년 목교에서 콘크리트교로 탈바꿈한 광주교.

1910년대, 즉 근대화 이전 광주는 읍성 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논밭이었으며, 이 논밭을 기를지계 했던 것은 광주천과 경양방죽의 물이었다. 특히 광주천은 광주 시가지와 관통하며 좌측과 우측에 드넓은 둔치를 만들었고, 이곳은 천혜의 경작지였다.

광주천 둔치에 일제가 눈독을 들인 것은 당연했다. 토지소유주와 분쟁을 벌일 일도 없고, 충분한 면적과 공업용수가 있어 산업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으로 단연 개발 1순위를 엮을 것이다.

일제는 광주 구도심, 다시 말해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 대한 정비를 상당부분 마친 1910년대 후반, 시선을 광주천으로 돌렸다. 구체적인 사업은 1921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이전인 1920년 북구 누문동 일대 둔치 1만5000평에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광주일고)가 자리를 잡았고, 같은 해 일본인 유력자들에게 둔치 일대에 뽕나무 재배를 목적으로 하천정용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첫 시가지개발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광주천 정비의 첫 작품은 1926년 늦게까지 같은 조선인들의 집합장소였던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쳐 상점과 노점을 테두리 속에 '가뒀' 관리하는 근대식 시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호남 최대의 시장이자 지역민들의 집합장소이기도 했던 큰 장과 작은 장을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백 년, 아니 그 이상 지속했던 서민들의 삶 그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의 일본인들은 1921년 '대광주 계획'을 내놓고 시장 정리·하수도 포설·시구 개편 등을 3대 사업으로 책정하지만 여기에 소모되는 엄청난 예산 탓에 그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1925년이 돼서야 일본인들로 구성된 광주번영회가 전라남도청, 조선총독부까지 쫓아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착수했고, 192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모두 3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업 별 예산은 시장 정리를 포함한 광주천 개수 16만원, 하수도 설치 12만원, 시가 정비 5만원 등이다. 당시 광주면 예산이 9만182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의 일본인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다.

광주천 개수, 즉 자연 그대로의 구불구불한 물길을 직선으로 한 데 모은 뒤 양 옆 둔치를 개발하는 사업은 크게 2가지

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큰 장과 작은 장을 합쳐 사정, 즉 지금의 사동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하나는 천정, 지금의 양동에 근대적인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자금 차입, 즉 빚으로 시작했다. 매립지를 평당 약 6원에 매각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것이 일본인 면장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1928년 고작 7만 여원의 예산만 투입한 채 서둘러 광주천 1차 개수사업을 마쳤다. 아마도 광주면의 열악한 재정이 주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본인 면장과 일본 개발업체가 합작한 '비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사업이 광주의 첫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광주의 첫 공직자 비리사건이라고 해도 될 듯하다.

당시 큰 장과 작은 장에는 300여 호의 점포가 있어 1500~16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일본인 면장 등은 이 점포들을 철거, 그 자리를 20평씩 분할해 위치에 따라 갑(156호)·을(506호)·병(64호)으로 점포 겸 가옥을 분류하고, 또 노점(50호)과 음식점(25호)은 물론 땀값나무를 거래하는 신탄시장 2400평, 가축시장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1차 개수를 끝마친 1928년, 일본인 면장이 점포 겸 가옥 67호에 대해 임대광고를 내면서부터 시작된다. 시장상인들이 너도나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 가운데 느닷없이 일본인 개발업체가 광주교 인근 '금싸라기'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 신축에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사상통신 등 언론들이 한국인 부면장도 몰랐던 이 '특혜분양'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시장상인들은 시민대회까지 열며 일본인 면장의 면적, 일본 개발업체의 건축면적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논란은 결국 일본인 면장의 해임으로 이어졌고 시장은 분양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1930년에야 비로소 문을 열게 된다. 1926년 점포 철거와 함께 삶의 터전을 상실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장 거래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던 광주 지역민의 고통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비리로 인해 수년간 지속됐을 것이다.

광주천 개수사업 첫 해인 1926년에는 광주에 그럴듯한 근대식 공장인 도시제사공장이 천정(양동) 60번지에 자리하게 된다. 부지가 2만평에 공장 건물 면적이 3153평에 이르는 이 공장의 대주주는 일본면화주식회사였다. 일제가 농산물에 이어 노동력 착취에 나선 것이다. 이 공장에 이어 종연(가네

보)방적공장, 약립제사공장 등이 잇따라 광주천 둔치에 건립되면서 광주는 일약 생산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하지만 이 3곳의 공장에서 15~16시간씩 일해야했던 여공들은 능력이 안 오르다며 점심까지 굶기는 일본인에게 항거해 동맹파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노동운동도 이 때 발원했다. 일제는 이 광주천 둔치에 대한 개발을 해방 이전까지 계속하고 있다. 남구의 방립동·양림동, 동구의 금동·남동·학동 등 광주천 주변의 지형은 모두 이 일제강점기 광주천 정비사업으로 완성된 것이다. 일제에 의해 조성된 학동의 광생지구, 즉 도시 빈민들을 위한 집단거주지는 지금은 아파트단지로 변했지만, 수년 전만 해도 '학동 8거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그 밖에도 1932년 일제는 광주천 하류로 눈을 돌려 북구 임동 일대에 제방을 쌓는 등 해방 이전까지 광주천 전체 연장에 대한 제방 설치를 사실상 완성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천의 지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극락천, 서방천, 운암천 등에 대한 정비는 물론 광주천 내 영산강에 대해서도 제방을 쌓고 호안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연의 거스름' 일제의 광주천 직강화와 무분별한 주변 개발은 수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해방 이후에는 이에 대한 보완공사 및 치수사업이 이어졌다. 해방된 뒤 광주천에 대한 첫 사업은 1948년 광산군 극락면 내방리, 지금의 서구 내방동 일대에 대한 호안정비 사업이었다.

한편 광주의 성장은 곧 광주천의 남쪽 측 좌안으로의 확장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광주천 우안과 좌안을 연계하는 다리는 필수불가결했다는 것이다. 1907년 광주교를 시작으로 1923년 금교, 1927년 광주대교, 1930년 부동교 등 다리가 잇따라 개설됐고, 이에 따라 광주천 좌안은 우안에 이어 시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www.geumsoojang.com